

의안번호	2213272
의 퇴 인	추경호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0.
추계번호	25A2733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과,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·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억 1,000만원, 2030년 8억 8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1억 7,000만원(연평균 6억 3,0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내용 확대(안 제25조제6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)	14.1	—	8.8	—	8.8	31.7	6.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제6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(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)	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①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, ②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·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5조제6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(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 제25조¹⁾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,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
-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시나리오별 발전량 전망 및 전기요금 추정을 포함하는데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요 비용 산출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며, 추계기간 동안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7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전제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전담인력 인건비 등 계속비용은 2년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행법 시행령 제15조²⁾에 따라 2년마다 수립·시행되며, 가장 최근에 공고된 「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24~2038)」은 2025년 2월 21일에 공고되었음
 - 이를 반영하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7년에 공고될 것으로 전제하되 개정안에 따른 시나리오별 발전량 전망 등을 포함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

1) 「전기사업법」 제25조(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(…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2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령 제15조(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)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(…)은 2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한다.

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며, 인건비 등 계속비용은 2026년을 기점으로 2년마다 발생할 것으로 가정

- 개정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시나리오별 발전량 전망 및 전기요금 추정을 포함하는 데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요 비용 산출 내역은 연구용역비, SW개발비 등 전산모형 추가 도입비, 전담인력 인건비 및 자문회의 운영비로 구성
 - ①전력수급계획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전환하고 전기요금 추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2억원, ②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추계를 위한 전산모형 추가 도입 비용 3억 3,000만원, ③전담인력 9명 추가 투입을 위한 인건비 8억 1,000만원, ④전기요금 추정을 위한 워킹그룹 등 자문회의 운영비 7,000만원
 - 이 중 연구용역비와 전산모형 관련 비용은 최초 도입 시에만 발생하며, 전담인력 인건비 및 자문회의 운영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주기에 맞추어 2년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1]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내용 확대에 따른 소요 비용 추정

	금액	발생 주기	비고
연구용역비	2억원	단년도	· 시나리오 기반 수급계획 전환 · 전기요금 추정 방법론 개발
전산모형 도입비	3.3억원	단년도	· 전산모형 추가 도입을 위한 SW개발 등
전담인력 인건비	8.1억원	2년마다	· 전문인력 9명 추가 투입
자문회의 운영비	0.7억원	2년마다	· 전기요금 추정 관련 워킹그룹 운영
합계	14.1억원	—	—

주: 소요 비용은 대략적인 추정치이며, 시나리오의 수,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, 자문회의 운영 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 이상의 소요 비용 산출 내역을 반영하면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되는 비용(국가재정 지출 증가분)은 연구용역비 2억원, 전산모형 도입비 3억원, 전담인력 인건비 24억 3,000만원, 자문회의 운영비 2억 1,000만원을 합하여 총 31억 7,000만원(연평균 6억 3,000만원)으로 추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- 연구용역비	2.0	-	-	-	-	2.0	0.4
- 전산모형 도입비	3.3	-	-	-	-	3.3	0.7
- 전담인력 인건비	8.1	-	8.1	-	8.1	24.3	4.9
- 자문회의 운영비	0.7	-	0.7	-	0.7	2.1	0.4
합계	14.1	-	8.8	-	8.8	31.7	6.3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요 비용 산출 내역을 반영하여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으로, 시나리오의 수,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, 자문회의 운영 규모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assembly.go.kr